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관)

현대불교

고대불교를 복원하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 평균 거래 금액 10억, 최고 100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30년이상 거래하신다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연장됩니다
● 문의: 02-623-0029

국민은행

영명회장: 노태환/발행인 겸 편집인: 김경삼/논설위원: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구로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재물을 얻는 것은 본인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는 무수한 중생의 수고로움이 직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내 것을 고집하거나 다른 이의 노고를 배어 있는 것도 모두 5계 가운데 투도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남보다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일으키고, 정당하게 사누어 아 할 것을 나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공경을 의연하고 혼자만 잘 살려고 애쓴다. 탐욕심이 많이 쌓일수록 '한보사태'를 보는 국민들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총체적 탐욕심에 허탈해 하고 있다. 우리 삶에서 재물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부처님 가르침이 절실하다. (편집자주)

논박 받지 않음 우마 노비 안된다. (범망경)
용인(龍人) 부녀자 친족 기타 여러가지 욕망을 탐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뜻 번개가 그를 이겨 휘날이 그를 짓밟는다. 그런 까닭에 괴로움이 그를 따라 다닌다. 마치 부처님 때에 물이 스며들듯이. (경집)

어려웁든 사람은 범부가 되어서 재물 모으기에 열중한다. 그리하여 때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쌓아 놓지만 하루 이침에 수명이 다하고 말 때, 재물은 그 몸을 따라가지 않는다. (경경)

시주한 물건이나 대중의 것 내라니 것 개인 소유권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 가지지 말라. 세금을 속이거나 배상을 안내는 것은 모두 흠치는 행위이다. (시미십계법)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주인이 있는 물건이든 도둑들이 훔친 것이든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라도 자신이 훔치거나 남을 시켜 훔치거나 수단을 써서 훔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오세요” 15권

근·현대 고승 서간문집 2권 12권

팔만대장경 '서울 나들이' 13권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서남아어 연구소 개원

빠르면 3월중... 초기경전 번역·연구인력 양성

승가대 김령교수 추진

산스크리트어 벨리어 티베트어 불교경전 번역과 연구인력을 양성할 '서남아어 고전(古典)연구소'가 설립된다. 중앙승가대학 책임교수 김령씨는 최근 연구소 설립 계획을 밝히고, 2월말 발기인모임을 거쳐 빠르면 3월중 창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스크리트어와 벨리어는 불교경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인도고대의 종교 철학 등의 고전을 기록한 언어로, 불교경전의 1차 원어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들 언어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5명 안팎에 머물러 있다. 김교수는 "산스크리트어 연구는 불교사상의 원류를 찾는 근본적인 작업"이라며, 인도고대인에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연구소 설립을 위해 후원회 결성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김교수는 종단과 종단대학, 유관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구소는 산스크리트어 벨리어 티베트어 경전의 한글 번역, 인도고대에 전공자 육성, 원전 정리사업,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월 1회 세미나 개최와 연구논문집 발간, 불교계 지도자 및 교수 연구자 기

업 및 정부의 정책부서 담당자 대상의 인도고대 언어·종교·철학 주제의 강좌와 위탁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불교대학 학사처장 마정스님은 "벨리어는 근본불교의 원형을 밝혀낼 수 있는 열쇠라는 점에서, 산스크리트어는 중국의 한역(漢譯)경전에 의존했던 지금까지의 한국불교 및 불교학연구의 관행을 벗어나 보다 가르침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언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봉수교수(종교대·불교원장)도 "산스크리트어와 벨리어가 부처님의 원음을 가장 생생하고도 순결하게 전해주고 있으며 또한 불법의 원초적인 형태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김령교수는 86년부터 89년까지 캐나다 캘거리왕립언어학교에서 산스크리트어를 전공, 박사학위와 교수직을 취득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산스크리트어 전문가이다. 한편 기업체에서도 서남아어 진출을 꾀하고 있으나 현재의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계획만 세우고 있거나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기업체의 관심도 매우 높다. (정성운 기자)



소적새마을 '설날'

"까지까지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2월 8일 정미인·고아·무의탁노인들이 살고있는 불교복지시설 소적새마을(원장 보각)에도 설이 왔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1백50여명의 원생들이 부처님께 먼저 새해를 올린 후 웃음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원주=고영매 기자)

승가대학령 전면 재개정 촉구

조계종 12개교구본사주지 강원 활성화 방안도

"성역없는 수사하라" 한보사태 관련 성명

조계종 12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지난 3일 한보철강 부도사태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조사방법으로 한보사태의 진상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본사주지들은 또 성명을 통해 △노동법 안기부법의 조속한 재개정 △공무원시험 일시의 일요일 환원과 △김한규 총무처장관의 사과와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주장했다.

조계종 12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지난 3일 유성관광호 법에서 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승가대학령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결의 내용이 원만히 관철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사항은 △승가대학령의 전면 개정 △기독교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학 수납 △학년 인원제한 철폐 및 총장원 20~70명으로 조정 △기존 강원 선인기 및 유예기간 2년 설정 △교수인원 2인 이상으로 하향조정 △비구니장원 의견수렴 등이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또 본사주지회의 정례회를 총무원에 촉구하는 한편 전 동강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구본사의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주사 불국사 동화사 금산사 송광사 쌍계사 수덕사 대운사 직지사 마곡사 백양사 화엄사의 주지스님 및 부주지스님이 참석했다.

96년도판 현대불교합본집 발간

1996년 한해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을 묶은 (96년도판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제시해 온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에는 '96년 불교사의 흐름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합본집은 불교사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그리고 신령의 길잡이가 필요한 불자들에게 좋은 지침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 권씩 소장하시고 또 이웃에게 법보시하시기를 권합니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문화유산의 70%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는 한국의 아름다움 상징하는 민족문화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이 땅의 천년불심이 스며 있습니다. 불교문화재는 그래서 성보입니다. 불교문화재를 바르게 이해하면 무언(無言)의 설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상의 슬결과 예지 그리고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적 미감과 정서의 원형질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느끼고 無言의 설법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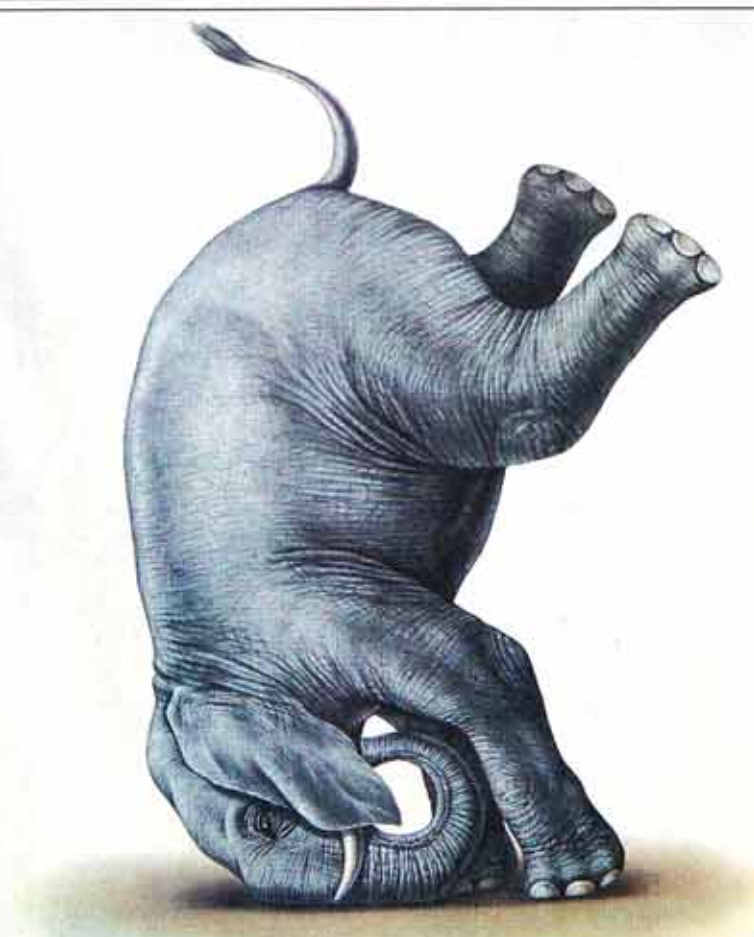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은 이같은 의미를 대중속에 심고 확대하기 위해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불교문화 테마여행'을 기획했습니다. 매일 주제를 갖고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이 행사는 종교적 특수성과 예술적 보편성이 만나 이룬 민족문화의 핵심으로 다가가는 한 문장을 할 것입니다.

2월 테마여행-통도사

가람배치로 본 자연과 인간의 조화

영축산 기슭에 자리한 불보중앙 통도사의 가람배치는 독특합니다. 냇물을 따라 동서로 길게 상로·중로·하로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과 불상을 안모신 탕반 대웅전(국보 290호)에서 통도사의 근본정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웅전 연화문 축대의 정교함과 양산전의 필살탱화, 가람존자가 미륵불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의 불발탑, 감지공니화영경변상도 등 통도사 국보·보물에 감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람과 자연과 인간과 불심의 조화에 또한 감탄할 것입니다. 통도사 박물관장이며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법하스님이 안내 강의하는 '불교문화 테마여행' 첫 회에 동참하시어 97년을 더욱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참가 안내
- 출발: 2월 23일(일) 오전 7시 - 조계사 앞
- 인솔: 법하스님(통도사박물관장) ○ 회차: 3일(일) (종식 지참)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한주여행사 (02)738-8100
-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5333(입금주) 입금후 한주여행사로 연락바랍니다.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지난 34년간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끊임없는 기술창조로 21세기 초일류 중공업회사로 도약하겠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무엇이든지 제대로 서는 법 - 중공업은 모든 산업발전의 근본입니다. 지난 34년간 국내 중공업계를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첨단기술로 실현하는 풍요로운 21세기를 위해 효성의 도전과 창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력사업부문
산업에너지의 핵심어는 각종 중장기기 및 용접선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요유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차단기, 전압분, 계전동, 용접기, 절단선비

기전사업부문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동기, 발전기, 감속기, 주축설비, 환류보전설비, 환류정지, 석도설비

자동차사업부문
최첨단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에서 분산, 집중 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차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계장설비, UPS, PLC 등 전선장치, 풀류 SYSTEM, SERVO SYSTEM, FA SYSTEM, 신소재 SYSTEM

건설사업부문
한계치도 하중이 없는 새로운 설계 시공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미끄럼, 모리스딩 등 각종 건축공사, 도로, 환안건설 등 도로공사, 포장공사, 운반공사

효성중공업주식회사